

■ 논문 ■

‘샤를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박 단

I. 머리말

2015년 1월 7일 현지시각 11시 30분 경, 알제리계 이민자 2세인 쿠아시 형제(Chérif et Saïd Kouachi)는 파리 11구에 위치한 풍자 시사만화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의 편집실에 난입해 10명의 편집진과 2명의 경찰관을 살해하고, 다른 네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¹⁾ 이러한 ‘샤를리 엡도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을 뿐만 아니라 누가? 왜? 라는 질문과 함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는 명제를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각인시켰다.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상당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진 바 있다. 그들은 대체로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들의 상황, 이슬람 극단주의, ‘표현의 자유’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 쿠아시 형제가 알제리 이주자 출신이라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프랑스 내 마그레브 출신 무슬림 이민자 2세대들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타종교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립 항은 언론을 가장

1) 이날 처형된 주간지의 편집주간 및 만화가들은 다음과 같다. 샤르브(Charb), 카뷰(Cabu), 오노레(Honoré), 티그누스(Tignous), 볼린스키(Wolinski). 그 이외에 편집자문을 맡은 경제학자 마루와(Bernam Marois), 정신분석학자 카야(Elsa Cayat)와 르노(Michel Renaud), 교정위원 무스타파(Mustapha), 우라(Ourrad) 등이 살해되었고, 주간지의 경호를 맡고 있던 경찰관 2명은 각각 브랭솔라로(Frank Brinsolaro)와 메르다베(Ahmed Merdabet)이다.

뜨겁게 달군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일부 논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샤를리 엡도가 모든 성역에 대하여 풍자를 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실,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과 무슬림 이민자에 적대적인 민족전선(Front National)을 매우 빈번히 풍자했을 뿐만 아니라, 좌우를 불문하고 정치인, 심지어는 교황까지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샤를리 엡도가 이들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할 정도였으니 이 주간지의 성역 없는 비판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대한 풍자는 이슬람이나 다른 정파의 풍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절제’되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²⁾

가해자인 쿠아시 형제가 왜 샤를리 엡도를 표적으로 삼았을까? 연이어서 일어난 아메디 쿨리발리(Amedy Coulibaly)의 유대인 전용 코셔 식품점 공격과 샤를리 엡도 공격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 두 사건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 관계, 이들 사건 범인들의 국제적 급진 이슬람세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특별히 논할 생각은 없다. 단지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두 사건의 피해 대상이 프랑스 사회 내 무슬림 이민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의 대표적인 상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해 실제 현대 프랑스 사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³⁾ 우선, 프랑스 내 무슬림과 유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의 주 가해자가 전통적인 백인집단에서 무슬림 집단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샤를리 엡도에서 해고된 ‘시네 기자 사건’을 사례로 들어 샤를리 엡도가 유대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비판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파리에서 일어난 유대인 청년 폭행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라이시테(laïcité) 원칙을 공화국의 제 1원리로 주창하고 있는 프랑스공화국이 모든 인종, 모든 종교에 대해

2) 홍세화, 「나는 샤를리다!의 빈자리」, 『한겨레』 (2015년 1월 30일)

3) 여기에서 기술된 사례들은 필자의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의 내용 가운데에서 일부 수정 보완되어 인용되었음을 밝혀둔다.

‘샤를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필자는 샤를리 엡도 사건과 코셔 식품점 테러 사건을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공화국의 삼자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상호 역학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이러한 상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쿠아시 형제들이 왜 샤를리 엡도라는 특정 주간지를 공격했는지, 쿨리발리가 왜 코셔 식품점의 유대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 실마리를 일부 풀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들여다보려는 것은 기존 언론이 집중 조명한 프랑스 태생 무슬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이 글은 한 발 더 나아가 무슬림 이민자와 프랑스 내 유대인 그룹,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 그리고 이 삼자 간의 관계를 역사 및 구조적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프랑스 사회의 무슬림 차별,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성격의 변화와 함께 프랑스공화국의 홀로코스트 콤플렉스를 일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II. 현대 프랑스 사회의 반유대주의 - 그 성격과 현황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행위와 관련하여 뚜렷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반유대주의의 주체가 백인 극우파에서, 같은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더 이상 기존 주류 백인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의 희생자인 무슬림이주자들이다. 백인이 가해자인 반유대주의와 무슬림이 가해자인 반유대주의 행위는 어떤 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다음의 질문을 해보자. 프랑스 내 무슬림들의 반유대주의 활동은 과연 고전적 의미의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에서 발생한 것인가? 국제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슬림들에 의한 반유대주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근동/중동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가을에 일어난

두 번째 인티파다⁴⁾의 발발로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는⁵⁾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라기보다, 유대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⁶⁾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

이처럼 국제정세와 연관된 반유대주의는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중동전 초기인 1967년 이미 프랑스 대통령 드골(Charles De Gaulle)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관련하여 프랑스 유대인을 비난한 바 있다. 6월 전쟁 당시 드골은 프랑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고, 1967년 11월 27일 개최된 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은 “엘리트 민족이고 ... 오만하다”고 지적하였다.⁸⁾ 드골의 이와 같은 언급으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는 유대인의 입장과 반유대주의의 정치적 이용에 관한 토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몇몇 유대인 비평가들은 드골의 코멘트가 상투적인 반유대주의를 합법화시켰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한 그룹의 지식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판단은 욕설에 가까우며, 반유대주의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수세기에 걸친 대량학살과 수백만의 학살을 그들이 정당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동적이다.”⁹⁾ 이스라엘 만국연합(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이 발행하는 유대 저널 『레 누보 카이에(Les Nouveaux Cahiers)』도 드골의 발언과 관련된 사설에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

4) 인티파다(intifada)는 봉기, 반란, 각성 등을 뜻하는 아랍어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연합이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지에서만 살게 된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킨 것을 말한다. 1차 인티파다는 1987년, 2차는 2000년 9월 발생했다.

5) Nicolas Weill, *La République et les antisémites* (Paris: Grasset, 2004), p. 15.

6) Alexis Rosenbaum, *L'antisémitisme: thèmes & débats* (Paris: Bréal, 2006), p. 91.

7) Philippe Ariès et Georges Duby (dir.), 김기림 역, 『사생활의 역사: 5.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새물결, 2006), 689쪽.

8) Paula E. Hyman, *The Jews of Modern Fr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 201-202.

9) *Le Monde*, 2 décembre 1967.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연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프랑스 국가, 프랑스 민족에 속하는 것과 이스라엘과 연대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고 선언했으며, 그 이유는, “프랑스의 다원적 공존은 현실이고, 다원적 공존을 부인하는 것은 프랑스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¹⁰⁾

드골의 ‘반유대주의 발언’이 근동/중동정세와 관련되었듯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무슬림 이주자들의 반유대주의 행위도 중동정세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반유대주의가 결코 프랑스 정치 생활에서 없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1970-80년대까지는 적어도 반유대주의 폭력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았다.¹¹⁾ 반유대주의 폭력행위는 무슬림 이민자의 2-3세대가 성장하여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는 분명 과거의 반유대주의 행위와는 달랐다.¹²⁾

그렇다면, 오늘날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행위’는 어떻게,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적 인종주의가 부정되고, 반유대주의에 대한 처벌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반유대주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래 프랑스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하다. 예를 들어, 1993년에 비해 2003년은 3배 반 정도 증가하였다. 비록 이러한 현상이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할지라도, 프랑스에서는 이 현상이 특히 새롭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종주의 활동에 폭력행위가 수반되기도 하였다.¹³⁾

프랑스에서 인종주의적 발언은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된 편이다. 2000

10)Hyman, *The Jews of Modern France*, pp. 201-202.

11)*Ibid.*, pp. 209-210.

12)Pierre-André Taguieff, *La Nouvelle Judéophobie* (Paris: Mille et une nuits, 2002)

13)La documentation Française, *Regards sur l'actualité: Racisme et anti-sémitisme*, 305(novembre 2004), p. 5.

년대 들어 이는 학교에서 새로운 현상이 되었는데, 특히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그러하다. 유럽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유대공동체가 존재하는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통계로 보면, 특히 2000년 이래 반유대주의 활동이 급증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반유대주의 활동의 주인공들이 줄곧 극우파들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들의 반유대주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이 도시 근교의 젊은이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을 국제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동정세의 불안과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¹⁴⁾

이처럼 2000년대 들어 반유대주의는 프랑스에서 인종주의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형태(폭력, 위협, 언어 등)의 반유대주의 활동을 합쳤을 때 그 빈도수는 2000년에 743건, 2002년에 932건이었다. 2001년에는 216건, 2003년에는 588건으로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04년에 들어서는 전반기에만 510건으로 증가했다. 우리는 2000년 이래 발생한 현상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선 1990년대와 비교할 때 엄청난 증가, 예를 들어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13배, 1997년과 2000년 사이에만 8배 이상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여기에 反마그레브인 포함)가 1990년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그 경향이 2000년 들어 바뀌었다는 점이다.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와 비교해서 반유대주의 활동이 완전히 다수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02년에는 반유대주의 활동이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에 비해서 2.4배나 많았다.¹⁵⁾

이를 더 구체화해보자.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는 주요 희생자가 유대인이었다. 2000년에는 82%, 2002년에는 71%, 2003년에는 72% 인 반면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 1/3 정도였을 뿐이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경향은 지속적으로 고착되는 한편 폭력행위도 심화되는 것을

14) Michel Winock, *La France et les juifs: De 1789 à nos jours* (Paris: Editions du Seuil, 2004), p. 351.

15) La documentation Française, *Regards sur l'actualité*, p. 10.

볼 수 있다.¹⁶⁾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언행들은 새로운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발 두아즈(Val d’Oise) 도(道)의 빌리에-르-벨(Villiers-le-Bel)에 있는 레옹 블룸(Léon Blum) 중학교에 다니는 14세의 여중생이 일부 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폭력과 모욕을 당했다고 그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소녀는 경찰 수사관에게 방과 후, 그녀의 친구 한 명과 집에 가다가 이 문제의 학생들로부터 다리를 폭행당하고, 반유대주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가자(Gaza)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폭격행위와 관련된 사건이었다.¹⁷⁾ 이 보다 앞서 2000년 가을에 일어난 두 번째 인티파다 이후,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⁸⁾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학교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2003년 11월 18일 세느-생-드니(Seine-Saint-Denis) 도(道)의 가니(Gagny)에서 발생한 유대인 학교 메르카즈 아토라(Collège-Lycée juif Merkaz Hatorah) 방화사건을 들 수 있다.¹⁹⁾

위의 구체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무슬림인 경우가 다수이며, 그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많다는 것은 무슬림 가해자 비율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유대주의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고 있음을 통계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로서도 증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중동정세의 불안과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16) *Ibid.*, p. 11.

17) Stéphane Jourdain, “Agression antisémite à Villiers-le-Bel: 4 collégiens mis en examen”, AFP du 9 janvier 2009 in <http://fr.news.yahoo.com/2/20090109/tfr-agression-antisemite-villiers-le-bel-f56f567.html> (검색일: 2009년 1월 17일)

18) Nicolas Weill, *La République et les antisémites* (Paris: Grasset, 2004), p. 15.

19) Winock, *La France et les juifs*, pp. 351-352.

대한 혐오라기보다, 유대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²⁰⁾ 자신들의 ‘형제’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증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는 반이스라엘적 성격을 띠며, 커다란 의미에서의 반유대주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프랑스의 무슬림이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가해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쿨리발리가 왜 코셔 식품점을 공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현대 프랑스 사회의 반유대주의 - 논쟁 속의 사건들

이번에는 샤를리 엡도가 2008년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시네(Siné)라는 기사를 해고한 사건을 추적해보자. 우리는 이를 통해 샤를리 엡도가 모든 대상을 성역 없이 비판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 이유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한계와 함께 프랑스 공화국의 홀로코스트 콤플렉스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2008년 7월 샤를리 엡도의 만평가인 시네(Maurice Sinet, *Alias* Bob Siné)가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 차남의 약혼문제를 비판하였는데, 그것이 반유대주의 논쟁으로 비화된 일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10일 뇌이-쉬르-센느(Neuilly-sur-Seine) 시청에서 장 사르코지(Jean Sarkozy)의 결혼식이 열렸다. 신부는 전자유통 재벌 다티그룹(Darty)의 상속녀 제시카 스바운-다티(Jessica Sebaoun-Darty)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같은 해 6월 약혼했을 때 나온 기사 한 컷 때문이었다. 이 약혼녀는 유대인이었고,²¹⁾ 장래 남편이 될 장 사르코지는 유대교로 개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평가 시네에게는 유대교로의 개종을 앞둔 장 사르코지의 행보가 탐탁지 않아 보였고, 그는 7월 2일자 시평에서 “장 사르코지는 유대인이자 다티 창업자의 상속녀인 약혼녀와 결혼하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는, “

20) Rosenbaum, *L'antisémitisme*, p. 91.

21) 프랑스의 유대인은 오늘날 대략 53만-70만 정도로 추정된다. Ariès et Duby, 8집, 『사생활의 역사: 5.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650쪽.

이 젊은이는 인생을 잘 살아가겠군!”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하나로 시네는 자신이 소속된 신문 샤를리 엡도에서 해고되었다.²²⁾ 반유대주의적 글을 썼다는 이유에서였다. 해고의 주체는 이 신문의 편집인인 필립 발(Philippe Val)이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언론계를 분열시켰다. 결국 많은 기사와 논단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는데, 『르 몽드』에는 철학자 베르나르-앙리 레비(Bernard-Henri Lévy), 『르 피가로』에는 평론가 알렉산드르 아들러(Alexandre Adler), 『리베라시옹』과 『누벨옵(Le Nouvel Observateur)』에는 각각 로랑 조프랭(Laurent Joffrin)과 드니 올리비엔느(Denis Olivienne) 등이 이 주제에 대해 모두 언급했다.²³⁾

신문 만평의 베테랑인 시네는 사실 그간 모든 종교와 권력을 비꼬면서 세상 물정을 알리는 데 공헌해 왔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늘 도발자이자 우상 파괴자였다. 아나키스트로서 反교권주의자이자, 反군국주의자이며,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자였다. 79세의 이 자유주의자는 독설의 천재로 FLN(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을 위해 일한 적이 있었으며, 쿠바 혁명을 동경했다.²⁴⁾

1992년 재발행 된 이후, 샤를리 엡도는 매주 시네의 시평을 발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은 2008년 7월 8일 터졌다. 『누벨옵』의 기자인 클로드 아스콜로비치(Claude Askolovitch)가 시네의 시평을 RTL 라디오 방송에서 재인용했다. “다른 데가 아닌 샤를리 엡도라 불리는 신문에 반유대주의 기사가 있다.”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해당 신문의 편집인인 필립 발은 장 사르코지의 측근에 의해 샤를리 엡도가 고소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반인종주의가 주요 사훈(社訓)인 샤를리 엡도가 반유대주의 때문에 법정 앞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필립 발은 시네가 사과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렇지만 시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필립 발은 7월 15일 시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필립 발이 나를 해고시키기 위한 지 2년이 되었다.” 시네는 자신의 글이 反유대주의적이라는 평가 자체를 논박하며, 클로드 아스콜로비치를

22) *Le Monde*, 28 août 2008.

23) *Le Monde*, 30 juillet 2008.

24) Bernard Langlois, “L’affaire Siné” in *Politis* (24 juillet 2008)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시네, 그리고 그를 해고시킨 편집인 필립 발의 입장은 어떠한가? 필립 발은 “나는 시네가 이야기하는 것에 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샤를리 엡도에서는 나와 다른 입장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의 표현의 자유는 인종차별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특히 금지하는 사훈에 분명 거스른다.”고 강조하였다.²⁵⁾ 시네가 분명 금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샤를리 엡도가 7월 16일 발행할 성명서에서, 필립 발은 “장 사르코지와 그의 약혼녀에 대한 시네의 발언은 사생활을 건드린 것 외에, 유대교로 개종할 것이라는 잘못된 루머를 퍼뜨린 것이다. 그러나 특히 그 발언은 유대교로의 개종과 사회적인 성공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발언은 용인될 수도 없고, 법정에서도 옹호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²⁶⁾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인종적 증오를 부추겼다고”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 연맹(*la Ligue contre le racisme et l'antisémitisme*, Licra)이 시네를 고소하였다. Licra의 변호사인 알랭 자쿠보비츠(*Alain Jakubowicz*)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시네에게 면책특권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과 디유도네(*Dieudonné*)가 동일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이 일로 기소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²⁷⁾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고 그는 결론지었다.²⁸⁾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사실, 시네는 4년 전 한 집회에서 유대식 이름에 대하여 야유한 일 때문에 고소된 적이 있었으며, 23년 전에는 반유대주의 언행 때문에 비난받은 적이 있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프랑스 유명 철학자 베르나르-앙리 레비(*Bernard-Henry Lévy*),²⁹⁾ 문화부 장관

25) *Challenges.fr*, 15 juillet 2008.

26) *Ibid.*

27) *Le Nouvelobs*, 9 septembre 2008.

28) *Ibid.*

29) *Le Monde*, 22 juillet 2008.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 그리고 역사학자 알렉상드르 아틀레르(Alexandre Adler), 과거 법무부장관이자 헌법재판소 소장이었던 정치인 로베르 바덴테르(Robert Badinter),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문학가인 엘리 비젤(Elie Wiesel),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 파리시장 등 19명의 유력 인사들이 『르 몽드』에서 시네를 해고한 필립 발의 입장을 지지했다.³⁰⁾ 이들은 7월 31일자 『르 몽드』에서 시네의 과거 행적을 지적했다. 1982년 8월 9일 점심시간에 파리 시내 대표적 유대인 구역인 마레 지역에서 일어난 <로지에 거리의 학살>(Fusillade de la rue des Rosiers)³¹⁾에 관하여 시네가 라디오 카르본느 14(Radio Carbone 14)에 나와 발언한 반유대주의적 행위를 상기시킨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탄을 퍼부은 이래 반유대주의자가 되었다. 나는 반유대주의자이다. 그것을 고백한 것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벽에다가 나치의 십자가를 그려 넣을 것이다.... 정말 진저리가 난다. 나는 유대인들이 친(親)팔레스타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포에 떨며 살기를 원한다.”³²⁾ 하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 사과하고 1985년 죄 값을 치렀다.³³⁾

시네는 ‘2008년도의 사건’(l’affaire Siné)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였다. “나는 단지 장 사르코지가 기회주의적으로 개종하는 것을 비난하였을 뿐이다. 만일 그가 이슬람국가 대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무슬림으로 개종했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가톨릭신도의 딸이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가톨릭에게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시네는 설명했다.³⁴⁾ 시네의 입장을 지지하며 그의 청원에 서명한 사람의 수는 사건 초기 며칠 만에 3,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월 2일에는 1만 명을 돌파하였다.³⁵⁾ 여기에는 같은 만평가인

30) http://fr.wikinews.org/wiki/Charlie_Hebdo:_Sin%C3%A9_s%C3%A8me_sa_zone (검색일: 2015년 10월 4일)

31) http://fr.wikipedia.org/wiki/Fusillade_de_la_rue_des_Rosiers (검색일: 2015년 10월 4일)

32) *Le Monde*, 31 juillet 2008.

33) *Le Monde*, 30 juillet 2008.

34) *Challenges.fr*, 15 juillet 2008.

35) *Le Monde*, 30 juillet 2008.

플랑튀(Plantu), 철학교수인 다니엘 벤사이드(Daniel BenSaïd), 유대계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에드가 모랭(Edgar Morin), 극좌파 정치인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회장을 지낸 유대계 의사 로니 브로망(Rony Brauman), 주거권 연맹(Association DAL, Droit au logement), 여성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지젤 알리미(Gisèle Halimi), 작가이자 언론인인 질 페로(Gilles Perrault), 배우이자 인권연맹 위원인 기 브도(Guy Bedos) 등이 있다.³⁶⁾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네는 9월 10일 수요일 새로운 풍자 주간지를 창간하였다. 《시네 엡도(Siné Hebdo)》³⁷⁾가 그것이다. 인터넷에서는 8월 27일 《시네 후원(Soutenir Siné)》이 발진되었다. 여기에 서명한 16,700명의 서명자에게 재정지원을 호소하였다. 이 신문은 시네가 1962년에 발행했던 신문의 현대판인데, “어떤 것도 준수하지 않고, 어떠한 타부도 없을 것이다.”³⁸⁾

이렇게 볼 때, 시네의 비평을 정말로 反유대주의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샤를리 엡도는 종교와 권력 등 그 모든 것을 비꼬며 비판해 왔다고 자부해 오지 않았는가? 이 기사 또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고, 유대종교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금 더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게다가 홀로코스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가 그 성격이 모호한 이 사건을 反유대주의 사건으로 단정 짓고, 몰고 갔다고 판단된다.³⁹⁾

프랑스 사회의 홀로코스트 콤플렉스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더 예로 들어 보자. 2008년 6월 한 유대인 청년이 파리 시내 길거리에서

36) *Ibid.* 8월 2일에는 서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http://fr.wikinews.org/wiki/Charlie_Hebdo:_Sin%C3%A9_s%C3%A8me_sa_zone (검색일: 2009년 10월 4일)

37) 현재에는 주간지에서 월간지로 바뀌어 있다. <http://www.sinemensuel.com/>

38) *Le Monde*, 28 août 2008.

39) 홍세화씨가 『한겨레』에 특별기고한 「나는 샤를리다!의 빈자리」에서 그가 인용한 이스라엘 출신 영국 지식인 길라드 아츠몬의 샤를리의 친유대적 성향 비판이나, 이스라엘 역사학자 솔로모 산드의 글도 시네의 사례를 뒷받침한다. (2015년 1월 30일)

유대인 특유의 모자인 키파를 쓰고 지나가다 아랍계 및 흑인 청년에게 구타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특별하게 취급되었으며, 금세 반유대주의 논쟁에 불을 당겼다. 만일 맞은 자가 아랍계 청년이었다라도, 이 사건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인종차별 행위의 일환으로 부각되었을까?⁴⁰⁾

『르몽드』에 따르면, 유대 청년은 우연히 아프리카 출신 청년 30여명과 19구(區)의 프티 거리(rue Petit)에서 조우했고, 이들에게 집단으로 두들겨 맞았다.⁴¹⁾ 이 버전에 따르면, 이 유대 청년은 키파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임이 드러나 폭행을 당했을 것이고, 이것이 유대단체들과 그 청년의 아버지가 라디오 방송인 RTL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반유대주의 행위로 단정 짓고, 그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사회 분위기는 쉽게 감지된다. 유대공동체 조직들은 이 폭력에 반유대주의적 동기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이들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어야 할 정치인, 정부 관료들도 이들의 견해에 매우 쉽게 동조했다. 이스라엘 공식방문을 마치고 일요일 저녁(6월 22일) 귀국한 사르코지 대통령도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자마자 자신의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모든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에 맞서 투쟁할 결연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 총리 또한 이 폭력을 비난했으며, 미셸 알리오-마리(Michèle Alliot-Marie) 내무부장관과 라시다 다티(Rachida Dati) 법무부장관,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제1야당인 사회당 모두 인종주의적 폭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⁴²⁾ 제라르 가셰(Gérard Gachet) 내무부 대변인 또한 피해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유대공동체에 대한 지지와 반유대적 폭력에 분노를 표현⁴³⁾ 함으로써, 이 사건을 반유대주의적 사건으로 단정 지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른 버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대청년 조직과 북아프리카

40) Mateo Alaluf, “Judéophobie,” *Politique*, 36 (octobre 2004) <http://politique.eu.org/archives/2004/10/135.html> (검색일: 2009년 10월 5일)

41) *Le Monde*, 22 juin 2008.

42) *Ibid.*

43) *Libération*, 22 juin 2008.

청년조직 사이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에 불과했다. 이 폭력은 ‘본격적인 전투’ 직전에 일어난 하나의 다툼일 뿐이라는 것이다.⁴⁴⁾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두 번째 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찰 측 증언”⁴⁵⁾ 이 이러한 버전을 제시하였다. 왜 이들은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가?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바로 反유대주의에 동조하는 자로 낙인찍힐 위험 때문은 아닌가? 이러한 것이 오늘날 유대인 문제와 관련된 프랑스의 사회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단순 폭력사건일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사후(事後)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는 루디 하다드(Rudy Haddad)라는 이름의 17세 청년으로 이날 시나고그에 가던 길이었다.⁴⁶⁾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오후 1시 30분, 19구 구청 근처에서 흑인청년들과 유대청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었고, 4시 30 분에는 같은 구역에서 20세의 유대청년 한 명이 친구 집에 가다가 공격을 당하였다. 이러한 법률자료를 검토해 본다면, 이 사건은 조직들 사이의 투쟁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⁴⁷⁾ 게다가 희생자인 루디는 2007년 12월 파리지역 시위 당시 ‘무력에 의한 폭행상해’로 이미 경찰에 의해 감치(監置)된 적이 있었다.⁴⁸⁾ 한 언론은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유대인 개인에 대한 공격과는 무관하였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⁴⁹⁾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공화국의 라이시테원칙에 따라 종교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프랑스 정부가 왜 유대인 조직의 주장과 궤를 함께하느냐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내무부장관인 미셸 알리오-마리는 이 사건과 연계하여 “공화국의 가치를 무시하는 인종주의, 反유대주의, 외국인혐오주의의 모든 언행에 대하여 결연히

44) *Le Monde*, 22 juin 2008.

45) *L'Express*, 23 juin 2008.

46) *Le Monde*, 23 juin 2008.

47) *Ibid.*

48) *Le Figaro*, 23 juin 2008.

49) *L'Express*, 23 juin 2008.

투쟁할 것”을 재차 확인⁵⁰⁾한 바 있다. 이러한 언사는 분명 반유대주의 행동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단호한 경고를 담고 있는 한편, 이 사건을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단정 짓고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기 보다 친유대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공동체의 피해에 대해서도 프랑스 공권력이 이처럼 단호할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의 종교에 대한 중립적 원칙을 강조하며 최근의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의 ‘과도한 언사’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대청년 사건에 대한 원로 정치인 장-피에르 슈벤느망(공화국시민운동Mouvement Républicain et Citoyen 의장, 사회당 정권 하 교육부, 국방부, 내무부장관 역임)의 비판이 그것이다. 그는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반유대주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동체주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아첨”이라고 비난하였다. 6월 23일, LCI 방송에서 슈벤느망은 “대통령이 모든 종파에 대해 예외 없이 계속 아첨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⁵¹⁾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공화국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유대청년이 공격을 당해 부상 입은 것에 대해 “수년 전 이래로, 이 구역은 4개의 조직, 즉 흑인, 마그레브인, 유대인 그리고 투르크인 조직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현 공화국의 주소이다.” “이민자들이 과도하게 특정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우리가 공유하는 공화국의 시민성은 결국 말살되게 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첨하는 것을 나는 비난한다.”라고 슈벤느망은 덧붙였다.⁵²⁾

이처럼 프랑스 사회는 한 유대 청년의 폭행사건을 두고 반유대주의 및 공화국의 정체성에 관한 많은 논쟁을 펼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유대 청년이 폭행을 당한 것이다. 누가, 무엇 때문에 한 유대 청년을 폭행했느냐가

50) *Le Monde*, 23 juin 2008.

51)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 연구』, 14호(2006), 245-247쪽 참조.

52) *Chevenement.fr* -le blog de Jean-Pierre Chevènement (검색일자 : 2008년 10월 4일)

명확히 규명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샤를리 엡도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들인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공화국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았다. 필자는 이미 프랑스 사회 내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차별 및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글을 통해 논의한 적이 있다.⁵³⁾ 프랑스와 이슬람의 관계는 단순히 푸아티에 전투(732년)를 막연하게 떠올릴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기인 프랑수아 1세 이래,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왕립학교(현 콜레주 드 프랑스, Collège de France)에 아랍어 교수를 채용(1530년)한 일이나 루이 14세 때인 1669년에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가 오스만 제국과의 외교 및 무역교류에 필요한 통역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이날코(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이하 INALCO, 국립동양어 및 문화 학교)의 전신인 청소년 언어학교(통역학교)를 세운 일,⁵⁴⁾ 1795년에 정식으로 INALCO를 세운 일 등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이슬람과의 교역에 많은 힘을 기울일 정도로 이슬람과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이였다. 하지만, 프랑스가 1830년 알제리를 식민화하면서 자신들과 종교 문화가 다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특히 프랑스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와의 전쟁(1954-1962)을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 내에서 일어난 전쟁은 알제리 농촌을 피폐화시켰고, 공업기반을 황폐화시켰다.⁵⁵⁾ 일자리를 잃은 자들 상당수는 자연히 고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식민지

53)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이민자 통합문제」 참조.

54)Emmanuelle Talon, “L’arabe, une « langue de France » sacrifiée”. *Le Monde Diplomatique* (Oct., 2012)

55)Benjamin Stora et Emile Temime, “L’immigration algérienne”, in Laurent Gervereau, Pierre Milza et Emile Temime(dir.),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au XXe siècle* (Paris: Editions d’Art, 1998), p. 128 et p. 130.

모국이었던 프랑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1962년 알제리가 독립된 후, 독립된 알제리 정부와의 여러 차례 회담을 거쳐 프랑스는 알제리인들의 프랑스로의 이주를 제한하려 하였다.⁵⁶⁾ 테러, 고문, 학살 등 전쟁 중에 일어난 상호간의 갈등, 특히 1961년 10월 17일의 사건, 이민자 2세들의 각종 테러,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⁵⁷⁾ 등으로 프랑스의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는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냉전의 종식 이후 발생한 구(舊)유고 내전,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다양한 이슬람권과의 전쟁, 9.11 테러 사건들은 프랑스에서도 무슬림들을 문명충돌의 희생자로 보기보다는 테러리스트로 보기에 충분했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이유로 주류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국제환경은 무슬림이주자들을 더욱 곤혹스런 처지로 몰아넣었다.

여기에 덧붙여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프랑스의 유대인 문제이다. 프랑스는 앞서 설명했듯이 라이시테를 원칙으로 하는 공화국,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공화국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1972년 7월 1일 채택된 플르방 법(*loi Pleven*)⁵⁸⁾을 한층 강화한 1990년 게소 법(*loi Gayssot*)⁵⁹⁾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경우, 즉 홀로코스트의 규모나 실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⁶⁰⁾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바 있다. 이 두 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틀인 정치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정 소수인종,

56) David Assouline, Mehdi Lallaoui(dir.), *Un siècle d'immigrations en France: 1945 à nos jours* (Paris: Syros, 1997), p. 23.

57)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이민자 통합문제」 참조.

58) 특정 종족, 민족, 인종, 종교에 소속되었다는 혹은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가해진 차별, 증오 및 중상에 대하여는 1년의 징역이나 30만 프랑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http://www.phdn.org/negation/gayssot/pleven.html> (검색일: 2009년 4월 15일)

59) 게소법을 포함한 일련의 ‘기억의 법’(les lois mémorielles)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용우, 「식민주의의 부메랑과 역사학-프랑스 2005년 ‘2월 23일 법’을 둘러싼 논쟁」, 『서양사론』, 115호(2012)

60) Ce que l'on désigne communément par « négationnisme », à savoir la contestation de l'ampleur ou de la réalité du génocide juif, tombe clairement sous le coup de cette loi. <http://www.phdn.org/negation/gayssot/24bis.html> (검색일: 2009년 4월 15일)

종교, 문화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한 개인 이외의 모든 중간집단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주의원칙과는 모순된다.⁶¹⁾

필자는 프랑스가 그들이 자부하듯 엄격한 의미에서 라이시테를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며, 공정한 심판자가 되지도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그들의 식민지 경험과 무슬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이슬람혐오, 그리고 비시 정부 시기 프랑스 국적 유대인을 프랑스인 스스로가 강제수용소로 보냈다는 죄책감 등의 업보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의 대책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강화나 아니면 반대로 라이시테의 철저한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문제제기로 돌아가 보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왜 샤를리 엡도를 공격하였으며, 코서 식품점에서 유대인을 살해하였는가? 그 원인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는 다문화주의 혹은 라이시테 강화 등 단순히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무슬림 이민자 차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문제, 더 나아가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역사부인(négationnisme) 문제,⁶²⁾ 그리고 ‘단일한 공화국’을 추구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까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강대학교, dahn@sogang.ac.kr

주제어(Key Words):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프랑스공화국(the French Republic), 반유대주의(Anti Semitism), 홀로코스트(Holocaust)

(투고일: 2015. 11. 05, 심사일: 2015. 11. 15, 게재확정일: 2015. 11. 19)

61) Karen Bird, "Racist Speech or Free Speech? A Comparison of the Law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Politics*, 32, 4(2000), pp. 399-418; 김남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 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집, 4호(2004), 358쪽에서 재인용.

62)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신동규, 「프랑스 부정주의의 논리-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식과 해석」, 『역사와 문화』, 28호(2014)

국문초록

‘샤를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
: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박 단

본 논문은 ‘샤를리 엡도 사건’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프랑스 내 소수자들인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그간 샤를리 엡도 사건이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의 자유,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 무슬림 이주민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유대인’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중심으로 재해석 해보려 시도하였다. 필자는 샤를리 엡도 사건과 같은 테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랑스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문화주의 채택 혹은 라이시테 강화 등 단순히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문제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보다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혹은 이슬람과 관련된 증동문제, ‘단일한 공화국’을 추구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오랜 치부인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강박관념 또한 새롭게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Charlie Hebdo* Incident and Minorities in France:
Muslims, Jews, and the French Republic

Dahn Park

This article deals with Muslims and Jews as minorities in France and with the French Republic in order to analyse the cause of the *Charlie Hebdo* incident. The debate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versus respect for other religions was among the most prevalent explanations offered by the mass media, along with issues related to second-generation Muslim immigrants of Maghreb descent in France. This article tries to reinterpret the historical context of this incident considering Muslims and Jews as minorities in France. I argue that French society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domestic problems, such as its multiculturalist policies and the enforcement of laïcité principle in schools, but als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 order to prevent future incidents such as the *Charlie Hebdo* attack. I emphasize that the French government felt remorseful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Holocaust and that this remorse, it led to French society's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which in turn seems to have caused these incidents.